

위기의 KIA-NC 오늘 챔스필드서 시즌 첫 격돌



김기태 감독의 KIA

‘디펜딩 챔피언’ 멤버 그대로 꽃길 걷나 했는데 투·타 잇박자·주전 부상에 경기 운용도 미흡 5연패 등 씁쓸한 기록 남기고 5할 승률 밑으로



김경문 감독의 NC

탄탄한 전력·대만 출신 왕 웨이중 선전에도 ‘빛속 잠실 혈투’ 후유증에 구단 최다 9연패 단독 1위서 8위까지 추락하며 총체적 난국

시련의 봄 반전이 필요해



‘시련의 봄’을 보낸 두 팀이 드디어 만난다. KIA 타이거즈는 4일부터 안방에서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보낸다. 2018시즌이 개막하고 달력이 두 장 넘어간 뒤에야 만나는 두 팀이다. 시즌 첫 만남을 앞둔 두 팀의 목표는 ‘반전’으로 같다.

올 시즌 출발 전 만해도 상위권 자리를 차지할 후보로 언급되던 KIA와 NC였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지난해 우승 멤버 그대로 2018시즌을 맞이하면서 많은 팀의 견제를 받았다. NC 역시 탄탄한 전력과 함께 KBO리그 출범 후 첫 대만 출신 선수로 영입한 왕 웨이중이 기대 이상의 모습으로 연착륙을 하면서 예상대로 봄날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KIA와 NC는 ‘위기의 팀’으로 5월을 시작했다.

KIA는 투고타자의 양상 속에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경기를 펼쳐갔다. 들쭉날쭉한 타선의 움직임 속, 초반 4·5선발의 고만도 있었다. 마무리 김세현이 6.17의 평균자책점으로 아찔한 3패를 기록하는 등 투·타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

여기에 이병호와 안치홍의 부상이 겹쳤고, 벤치의 구슬 깨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국 양현종의 완투패, 한화전 5연패 등 씁쓸한 기록들이 만들어지면서 5할 승률 아래로 추락했다.

NC는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빛속의 잠실 혈투’ 후유증이 컸다.

4월 6일 시작된 두산과의 잠실 원정 타이틀은 ‘1위 싸움’이었다. NC는 1위 자리에서 반 경기 차 2위 두산과의 대결에 나섰지만, 6일 미세먼지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이어 두 경기에서는 모두 패를 당하고 내려왔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진행된 8일 경기에서 9회초 4점을 뽑아내면서 10-9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9회말 스크릭스의 빠른 실책과 함께 10-11 끝내기 패를 지켜야 했다. 5일 정월 삼짇날부터 시작된 NC의 패배는 15

일 인천 SK전까지 이어졌고, 구단 최다 연패 타이틀인 9연패를 기록했다. 연패에 허덕이는 사이 순위는 8위까지 미끄러졌다.

매우 감지 않은 초반을 보낸 두 팀의 첫 만남, 벤치의 지략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던 위기 상황을 겪은 KIA 김기태 감독과 NC 김경문 감독이다. 팀의 추락을 속절없이 지켜왔던 두 사령탑에게 반전의 승리가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

배구 스타 이다영 6일 광주 시구

‘알짱 세터’ 이다영(현대건설 힐스테이트·사진)이 6일 KIA 타이거즈의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KIA는 6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현대건설 배구단 세터 이다영을 초청해 승리 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응원하게 된 이다영은 “멋진 시구로 KIA 타이거즈 선수단에 유쾌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빠어난 실력과 함께 화려한 쇼맨십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다영은 최근 열린 2017-2018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베스트7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다영의 어머니는 88서울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 세터를 맡았던 김경희 씨이며, 쌍둥이 언니인 이재영 선수도 V-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대표 배구 가족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복병 만났다

류현진 사타구니 통증으로 3~4주 재활 필요

초반 호투를 이어가던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사타구니 통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다.

류현진은 3일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2회말 1사 후 데본 마레로에게 이날의 30번째 공을 던진 뒤 갑자기 통증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트레이너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다리 상태를 확인했지만, 더는 던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의 부상 부위를 왼쪽 사타구니 근육이라고 발표했다.

야구 국가대표팀에서의 인연으로 류현진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프로야구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이자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회장인 김용일(52) 코치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정확한 부상 등급 진단을 봐야겠지만, 통증이 가벼우면 3주, 보통은 4주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김 코치는 2015~2016년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잇달아 수술한 류현진이 스토브리그 기간 국내에서 훈련할 때 재활을 도와 류현진 부활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이날 류현진의 등판을 TV로 봤던 김 코치는 “2회 첫 번째 타자를 상대할 때 왼발이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럴 경우 사타구니 쪽 근육이 갑자기 늘어 나게 된다”며 “다른 근육운동과 러닝에는 큰 무리는 없지만, 공을 던지는 투수로서 당분간 투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상태에 따라 2주 가량은 못 던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류현진이 2013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했다는 소식은 이번이 두 번째다.

류현진은 어깨 수술 후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던 2016년 4월 사타구니 통증으로 불펜 피칭을 중단했다가 열흘 만에 재개한 적이 있다. 당시엔 어깨 재활 중이었는데 훈련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고, 사타구니 통증도 경미해 급세 불펜 투구



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오른쪽)이 마운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엔 전력을 다해 던지는 정규리그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동안 공을 던질 수 없다면 한창

좋았던 페이스도 끊길 판이다.

류현진은 전반기까지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22를 올려 불안한 다저스 선발진의 기동 노릇을 해왔다. /연합뉴스

복병 넘는다

정현 BMW오픈 8강서 클리잔 상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위·한국체대)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MW오픈(총상금 50만1345 유로) 4강 진출에 도전한다.

정현은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대회 5일째 경기에서 마르틴 클리잔(122위·슬로바키아)을 상대로 8강전을 치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4강까지 올랐던 정현은 공교롭게도 클리잔과 2년 연속 이 대회 준준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정현은 클리잔과 지난해 이 대회 8강에서 만나 2-1(6-4 3-6 6-2)로 승리했다.

지난주 바르셀로나오픈을 통해 올해 클레이코트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던 정현은 발목 통증으로 인해 스페인 대회를 건너뛰고 BMW오픈에 나왔다.

3월 말 마이애미오픈 이후 약 1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한 데다 발목 부상까지 겹쳐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정현은 2일 열린 2회전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건재를 과시했다.

정현은 단식 2회전에서 마티아스 바헝거(163위·독일)를 불과 59분 만에 2-0(6-1 6-1)으로 완파했다. 서브 에이스를 5개 꽃아넣었고, 상대에게 서브 게임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

다만 첫 서브 확률이 56%에 그쳐 자신의 시즌 평균 61.3%에 미치지 못했고, 더블볼트도 5개가 나오는 등 서브의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정현의 2회전 상대 클리잔은 현재 세계 랭킹 122위지만 2015년에 24위까지 올랐던 ‘복병’이다.

지난주 바르셀로나오픈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2위·세르비아)를 꺾었고,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상대로도 비록 0-2로 졌지만 2세트 게임스코어 5-3까지 앞서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키 191cm인 클리잔은 정현보다 3cm가 더 크고, 왼손잡이로 지금까지 투어 대회 단식에서 5번 우승한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 10개국 참가 ‘역대 최다’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 역대 최다국이 출전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와 야구계에 따르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몽골, 파키스탄, 태국 등이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상 8개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한 나라다. 여기에 주최국 인도네시아와 최근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에

연속 출전한 필리핀도 대회 참가를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만수 전 SK 감독이 야구를 보급하고 있는 라오스가 전격 참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시아야구연맹(BFA)은 참가국이 9개국 이상 되면 아시아 랭킹 7위 이하 팀끼리 예선전을 치른 뒤 4개국씩 A, B조로 나뉘

1라운드 치를 계획이다. 1라운드 각 조 2위 팀은 2라운드인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이 경우 1라운드 각

조 1위 팀은 1승을 안고, 2위 팀은 1패를 당한 상태에서 슈퍼라운드에 올라 반대 조 1.2위와 경기한다.

슈퍼라운드에서 1.2위 팀은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다투고, 3.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하게 된다.

1라운드는 8월 26, 27, 28일 열리고 슈퍼라운드는 29일과 30일 펼쳐진다. 31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9월 1일 대망의 결승전과 3-4위전을 함께 치른다.

한국대표팀이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선 6전 전승을 거둬야 한다. 그러나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만은 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일본도 프로리그 1.5군이 참가할 가능성이 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프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1998년 방콕대회와 2002년 부산,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06년 도하대회에서는 대만과 일본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연합뉴스